

# 섬섬(島)마다 헌사롭게, 1004의 정원을 꿈꾸며

자치CEO

박우량  
신안군수



추석까지 이어졌던 무더위가 이제야 한풀 꺾이며 지역마다 가을 방문객 맞이 가 한창이다.

우리 신안군도 지난달 병풍도 맨드라미 축제를 열고, 높아진 가을 하늘만큼이나 많은 관광객이 지역을 찾아주길 기대하고 있다.

우리 군은 지난 민선 7기부터 '1섬 1정원' 프로젝트를 추진해오고 있다. 1004개의 섬마다 그 독특함을 담아내는 핵심(Core)정원을 만들고 1년 사계절 꽃을 피워내겠다는 대계(大計)를 실현해가고 있다. 총 22개 정원을 조성한다는 목표 아래 지금까지 16개 정원이 완성되었고, 붉은꽃 정원, 백서향 정원 등 6개 정원이 더 조성될 예정이다.

첫 시작은 2018년 '수선화의 섬'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가고 싶은 섬' 사업대상지였던 선도에, 현복순 여사의 이야기에서 모티브를 얻어 수선화를 식재하고, 수선화의 섬 조례를 제정했다. 이듬해 2019년에는 섬 수선화 축제를 개최했다. 이후로도 수선화, 유채, 금영화 등 13ha 정원 공간을 조성하였고, 올해 수선화 축제에는 2만 명이 다녀갔다.

도초도에는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수국을 심고, 2020년부터는 '명품굴절'

사업으로 팽나무 716그루를 식재했다. 팽나무 10리길을 조성해서 팽나무 길부터 수국정원에 이르는 '환상의 정원'을 구현했다. 올해 수국축제는 3만 명이 방문할 만큼 한여름 무더위에도 그 저력을 보인 축제였다.

병풍도에도 2019년 맨드라미 정원을 조성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18ha 정원을 가꾸었다. 매년 열리는 '섬 맨드라미 축제'에는 1만2000여 명이 찾고 있어 명실상부 힐링의 섬으로 거듭나고 있다.

아울러 내년에는 장산도 '화이트정원', 옥도 '작약의 섬'을 본격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전남군형발전300'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정원을 만드는 것 외에도 기존에 조성했던 튜립공원(임자도), 분재공원(압해도), 휴양림(자은도)을 튜립홍매화정원, 분재정원, 뮤지엄파크로 개편하는 한편, 퍼플섬에는 버들마편초, 아스타, 라벤더 등 계절마다 다른 보라 꽃으로 정원을 가꾸어 문화와 예술이 생동하는 정원 공간을 만들고 있다.

물론 '1섬 1정원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에 어려움도 적지 않았다. 우선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했다. 다행히 군 의원들께서도 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바라며 한목소리로 협조해주셨고, 2019년 한 해에만 '맨드라미의 섬 조례'를 비롯한 정원 섬 조례 13건이 일괄 통과될 수 있었다. 2023년에는 정원 조성을 위해 원포인트 추경예산편성이라는 초유의 상황에도 흔쾌히 동의해주셨다. 이 글을 빌려 신

안군 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

주민들의 지지와 협조를 어떻게 이끌 어낼지도 고민이었다. 그러나 퍼플섬이 공전의 히트(?)를 치면서, 주민들도 '내고향', '내 섬'의 브랜드화를 소망하며, 정책에 지지를 보내시는 분들이 크게 늘고 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장기적으로 7000억원이라는 그 많은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우리 군은 이를 해결할 방법으로, 수목을 직접 구매·식재하고 또한 '정원수 사회적 협동조합'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안했다. 이는 주민들이 협동조합에 참여해서 정원을 키우고 군에서 그 정원수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협동조합 현지 조달 등 다양한 방법으로 3800억원(53%)을 절감할 것으로 예측된다. '신안군 정원수 사회적 협동조합 정책'은, 조달가보다 저렴한 비용, 높은 활착률, 주민소득 증대, 주민참여 확대와 자긍심 제고라는 일석오조(一石五鳥) 효과가 있는 획기적인 정책이었다.

우리 군은 단지 정원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넘어, 가까운 미래에 '국가 섬 정원'을 비전 삼아 '1섬 1정원' 프로젝트를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 거센 바닷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두 세기가 넘는 시간 그 자리를 지켜온 가거도의 나한송처럼 우리 군의 1섬 1정원 프로젝트가 흔들리지 않도록 신안군민들과 독자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바라며 기고문을 마친다.

## 대화·존중 통해 선진 집회·시위 문화로 나아가자

독자투고

집회·시위 문화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다. 현재의 집회·시위 문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대화와 소통의 강화다. 집회와 시위는 의견을 표출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이를 통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집회·시위의 주최자와 정부, 그리고 일반 시민간의 대화 채널을 마련하여 서로의 입장을 이해

하고 조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법과 규범의 준수다. 집회와 시위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지만, 이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해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집회 시위 참가자들은 법과 규범을 준수하며, 평화로운 방식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다양성의 존중이다. 집회·시위는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담아내는 공

간이어야 한다. 특정 집단이나 의견만이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목소리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교육과 인식 개선이다. 집회 시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참여를 위해 시민 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시민들이 집회·시위의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다 성숙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방향으로 집회·시위 문화가 발전한다면 보다 건강하고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정용대 (보성경찰서 경비안보과 경위)

# '미래 꿈꾸는 공동체' 함께 모색해가는 변화의길

기고

박이슬  
해음사회복지연구소  
부소장



오늘날 사람들은 사회적·문화적 변화를 통해 개인의 자유, 독립성, 자아 실현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이런 시대적 흐름은 개인의 권리와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전통적 공동체와 가족, 집단 중심의 가치에서 벗어나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을 우선시하는 성향이 반영되어 있다. 그렇게 공동체사회가 붕괴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새로운 형태의 삶, 더 나은 사회,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상생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개인주의와 사회속에서도 뜻깊은 공동체의 모습을 만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다음 네가지의 방법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먼저 미래지향적 공동체는 창의성과 혁신적인 사고관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젊은세대의 특성은 기존 시스템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특히 디지털 네이티브로서 기술을 자유롭게 다루는 청년들은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블록체인, AI와 같은 혁신적인 도구들을 활용해 공동체의 경계를 확장하고 있다.

이런 혁신적인 사고는 공동체 내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나 더 나아가 지역의 가치 창출형 스타트업을 촉진시키고, 더 나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셜벤처나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비영리 단체, 중앙정부 부처에서 진행중인 청년마을 사업 등이 그 좋은 예로 이것들을 전폭적으로 육성하여 창의성과 혁신의 HUB역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두번째는 미래지향적인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것은 개인의 성공보다는 집단적인 성공을 추구해야 한다. 경쟁보다는 협력이 중요하며, 각 개인의 다양한 능력과 역량을 공동의 목표를 위해 응집해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연대와 협력은 구성원들간에 서로 지지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구조가 잘 자리잡기 위해서는 수직적 의사결정이나, 수평적 의사결정 어느 한 방향만 고집하지 않고 두 의사결정 방식이 이원화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 이는 각 방법의 장단점이 존재하기에 긴급하게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는 수직적 구조를 차용하여 경험이 많은 의사결정권자를 존중하고, 이외에는 구성원간 아이디어가 촉진될 수 있는 수평적 의사결정을 접목한다면 각자 목소리가 존중받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줄 것이다.

세번째는 미래를 꿈꾸는 공동체는 과거의 두레, 품앗이 등과 같이 단순 상호부조적 성격에 멈춰있으면 안된다. 과거와 달리 국가전반적으로 다양한 복지정책이 발전하고 세부화 되면서 물질적, 정서적 부분까지 책임지고 있는 형편이다. 기후위기 대응, 사회적 불평등, 교육 기회의 격차 등 현대 사회의 문제들을 이들 공동체가 지역사회 내에서 실천하며 풀어야 할 중요한 과업이다. 이들 공동체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열린 자세로 토론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보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실천적 행동을 통해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해야 한다. 예시로 다양한 민관의 주민참여 활동, 기후위기 대응운동, 교육 개선 프로젝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 활동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공동체는 지역과 영역의 경계를 넘어, 글로벌화 또는 사업화되며 연결되고 있다. 디지털 기술 덕분에 세계 곳곳의 공동체들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구조이다. 아니 어쩌면 공동체의 의미를 구분짓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단위-큰단위/영리와 비영리를 오가는 사업화 등 다양화가 되어가기 때문에 이들은 공통된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며, 국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대를 형성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캠페인이나, 인권 보호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청소년 교육개선을 위한 마을 공동체, 세월호 시민상주활동 등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미래지향적인 공동체는 단순히 공상에 불과한 이야기가 아니다. 나 자신부터 해당 구성원이 되어다가를 미래를 준비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것이다.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 복고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